# 광주 어린이 포교 활성화 시작된다

##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4월 12일 새 집행부 구성

## 신임대표에 동천 스님 취임 공동대표 지선 · 무등 스님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4월 12일 진행된 이취임식에서 집행부 스님들과 대중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상임대표 동천, 이하 어청련)이 제2기 신임 대표단을 출범하고 호남지역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 나선다.

어청련은 4월 12일 광주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제2대 신임대표 이 · 취임식을 갖고 상임대표 동천 스님(담양 호국사 주지)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공동대표에 지선 스님(무량선원 주지), 무등 스님(천룡사 주지)도 취임해 함께 호남지역 포교 사각지대인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책을 맡았다.

행사에는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소원정사 도계 스님, 녹야원 효공 스님, 동구청소년수련관장 소운 스님, (사)동련 광주지회장 지장 스님을 비롯해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장 등 100여 대중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간소하게 진행한 이취임식은 불교의례에 이어 내빈소개, 연혁보고, 감사패 전달, 이임사(도성 스님), 취임사(동천 스님, 지선 스님), 축사(무공 스님, 도계 스님, 효공 스님, 이범식 신도회장), 이사 위촉 순으로 진행됐다.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동천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포교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주신 전임 대표 도성 스님에게 감사드린다. 매월 진행하는 숲법회와 요리법회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헌신해 주신 분들과 후원해 주신 대덕 큰스님, 후원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역의 포교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취임사에 앞서 도성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소임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이사 스님과 재가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후원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사찰 주지스님들과 후원자들을 잊지 않겠다. 앞으로 어청련이 더욱 발전하여 호남포교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청련은 2017년 11월 광주전남 불교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전도의 길을 떠나라' 는 부처님의 전법정신을 기치로 출범시킨 포교 단체다.

주요활동으로 (사)동련의 어린이 포교활동과 (사)파라미타청소년협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사업으로 숲법회, 가족 요리법회, 어린이 수계 산림, 연꽃문화제, 전통탁발 재현행사 등을 진행한다.

최근 구례군으로부터 구례청소년문화의 집, 구례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수탁 운영 중에 있다.

# 삼론종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 취임

## 4월 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취임법회 개최



삼론종 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이 삼론종기를 힘차게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삼론종

대한불교삼론종 제10대 총무원장으로 해불 스님이 취임했다. 삼론종은 4월 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 취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혜승 스님을 비롯해 전계화상 혜공 스님과 총무원장 해불 스님, 종회의장 지경 스님 등 1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해불 스님은 취임사에서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며 "수행가풍 및 승풍 진작과 종무행정 및 승단교육 체계화 등을 위해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사부대중이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퍼지고 세상이 평화롭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불국정토로 코로나 시국에 세상의 안녕을 위해 화합하자"고 강조했다.

취임법회에서 종정 혜승 스님은 "대한불교삼론종의 신임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마음을 모아 불국정토 완성에 용맹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광주 보은사 삼존불 점안식



광주 보은사(주지 도제)가 지장보살 복장과 함께 이전에 조성했던 약사여래,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괘불(높이 280cm) 점안식을 갖고 지역 불교의 전법도량으로 거듭나기를 서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주 현고 스님, 도제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해남 광보사 주지 자황 스님, 위무띠 스님(미얀마)을 비롯해 100여 대중이 참여했다.

현고 스님은 "앞으로 지역 포교와 수행에 전념하는 사찰로 더욱 앞서 나아가기를 당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조성을 위해 십시일반 시주한 공덕에 감사하다. 앞으로 지역민들의 신행을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향의 소회를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정호대종사 제73주기 추모다례재

## 4월 10일 선운사서 개최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일제 강점기 조선불교교정(종정)을 역임하고 근대 한국불교 초석을 놓은 영호당 정호대종사의 73주기 추모재 및 역대 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4월 10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영호당 정호대종사 73주기 추모재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원로 재곤 스님, 대우 스님 등 40여 본말사 대중스님이 참석했다.

상단 불공에 이어 분향, 사부대중 삼배, 영호대종사 행장소개, 추모입정,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추모재에서 사부대중은 우리나라 불교 근대교육의 선구자이자 대석학인 석전 영호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부도전으로 자리를 옮긴 사부대중은 선운사 역대 조사스님들에 대한 다례재를 봉행했다.

박한영 스님으로도 알려진 영호 스님은 율(律), 화엄(華嚴) 종주인 백파 긍선 스님의 법손으로 선교를 겸수한 선사이자 강백, 율사로 명성을 떨쳤다.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초대 교장을 지냈으며 1929년부터 1946년까지 20년간 조선불교교정으로 한국불교를 이끌었다. 또 불교 친일화에 반대해 서울 개운사에 대원불교강원(大圓佛教講院)을 설립, 청담 스님, 운허 스님 등과 문인 서정주, 신석정, 조지훈, 김달진, 김어수 등을 양성했다. 1919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임시정부 수립에 전북 대표로 참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이리불교대학 31기 18명 입학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은 4월 11일 관음사 3층 대웅전에서 학장 덕림 스님과 부학장 송동기,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이택회 익산불교신도연합회장, 오창록 이리불교대학 동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1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에 앞서 권민호 불자 등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수계도 진행됐다. 학장 덕림 스님은 치사를 통해 "코로나19 속에서도 불교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불교대학에 입학한 후 강사 및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은 발원문을 통해 "불법승 삼보를 존중하고, 보살도 정신을 투철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리불교대학은 2020년까지 총 70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대성사 봉축등 만들기 경연대회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도원)는 4월 11일 경내 서원당 3층에서 봉축등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대 신도회장을 비롯해 이영규 문화위원 등 대성사 7개 지회와 합창단 등이 참석했다. 경연에서는 '무소양초' (무조건 소원을 들어주는 초) 등 17개의 작품이 선보였다.

도원 스님은 "지구 공동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토와 마음의 청정을 위해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대성사 도량에서 가내평안의 소원을 이루는 기회를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연대회서는 대상 등에게 총 220여만 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태고종 나누우리, 난치병환아돕기 나서




사단법인 나누우리(이사장 도산)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치료 후원금을 전달했다. 4월 13일 서울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사장 도산 스님을 대신해 운영이사 재홍 스님(서울 성주암 주지, 태고종 고시위원장)이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김영학 과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치료비 후원대상은 관악구에서 추천한 장폐쇄증 환자인 12살 배 모 어린이, 수두증을 앓고 있는 4살 권 모 어린이, 지적 뇌병변을 앓고 있는 9살 노 모 어린이다. 나누우리는 이들에게 각각 100만원 씩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인사말씀



귀의삼보하옵니다

전북 정토사 주지 가법스님 소중한 인연 있는 사부대중님들께 정중히 인사 말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승이 전남 순천 송광사 천자암에서 30여 년의 수행 생활 이후 전북 정토사로 수행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토사 불사 등으로 경황이 없어 소중한 분들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지면으로나마 인사 올림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옵길 바랍니다. 소승은 더욱 더 정진하여 불교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주지 **가법** 합장-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솟대1길 정토사(삼천동1가) 전화 : 010-3137-3785

말기암 · 환자 · 암 · 소멸 · 임상실험 후원비 도움 주실 분

허리 · 무릎 · 목 · 엉치 · 다리

수술, 시술, 근육치료, 부항 등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1회 체험하러 오세요.

진짜 거짓말처럼 즉각 효과를 확인 해볼 수 있는 발명특허의
**세상에 유일한 원리방식**의 **척추 골반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말기암 환자 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러 오세요.
**암을 극복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암 소멸에 대한 임상실험 반드시 하겠습니다.

NAVER 척추근육강화기 검색




소자본지점 모집

예약 010-6575-7866